

11대노조 투쟁깃발 올랐다

민주적 조합운영, 선명한 노조정체성 확립 등 4개사업 선정

인천일보 제11대 노조가 공식 출범,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정찬홍 노조위원장, 반준열 김형태 김기준 부위원장과 남창섭 사무국장 송영희 사무차장 체제로 출범한 11대 노조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투쟁노조'를 선언하고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1대 노조집행부는 '민주적 조합운영' '조합원들의 참여 활성화' '사업의 다각화' '선명한 노조정체성 확립' 등 크게 4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민주적 조합운영'은 각 본부별 조합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즉, 노조집행부의 모든 정책을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11대 노조는 무엇보다 노보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노보에 회사 내·외부 비리고발센터를 마련해 접수하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다.

특히 부서별, 기수별, 개인별 대화시간을 수시로 가져 '찾아오는 노조, 모이는 노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선명한 노조정체성 확립'도 11대 노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타협주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얘기하고, 잘못된 경영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게 노조의 기본 방침이다.

이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조는 '사업다각화'를 모색중이다. 문화사업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늘리고 투쟁기금도 적립하겠다는 것이다.

11대 노조는 집행부와는 별도로 홍보선전위원회, 투쟁위원회, 재정위원회, 여성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회는 파업 등 쟁의행위돌입 등 비상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장기적인 회사발전과 노동조합원, 직원의 권익을 위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회사 내·외부
비리고발 접수합니다
016-308-0335(노조위원장)
019-9410-2311(노보편집장)



인천만평

김진국

조합원들이여, 똥똥똥 처 투쟁하자



우린 불안하다. 언제 해고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회사는 최근 간부 두 명과 부장급 두 명에 대해 '권고사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 토막 내듯 싹둑 잘라버렸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들은 모두 1988년 회사창간 초기부터 고생을 하고 지금의 인천일보가 있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혹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장장 '15년'이란 세월을 인천일보라는 울타리에서 울고 웃고 했던 '인천일보인' 들인 것이다. 그들에게 인천일보는 젊음과 열정을 바쳐 일해온 일터였으며, 박봉과 열악한 처우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품고 싶었던, 또 지금도 품고 있는 그런 씨앗이었던 것이다.

그런 감상주의적 시각은 일단 차치하자.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의 뚜렷한 명분이 있으며 합당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다.

회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노동법에 따르면 구조조정은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뒤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와 성실한 협의를 한 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사의 정리해고의 경우 협의는 커녕 뚜렷

한 명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라도 CEO는 자의로 회사를 떠나기 전엔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탐나는데로 공언해 왔다. 직원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깨뜨려 버렸고, 직원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직원회의에서도 수차례나 강조했던 '회사의 일방적인 무해고 원칙'이 깨진 마당에 다른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직원들이 있을까.

구조조정은 직원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의 능률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삭막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회사는 몇 푼의 월급을 줄이려다 결국,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노고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인원이야 월급 적게주는 사람으로 메울 수 있지만 해고당한 이들이 수십년간 쌓은 노하우는 웬만한 비용으로는 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제적 비용보다 더 큰 것은 회사의 약속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 속 깊이 절감했다.

조합원들이여 이제 생존을 위해 똥똥 똥 처!

제 11 대 집행부 및 노조편 집행장 · 민실위 간사

위원장



정찬홍

부위원장



반준열

부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



김기준

사무국장



남창섭

사무차장



송영휘

투쟁위원장



유병범

노보편집장



김진국

민실위간사



지건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

불퇴전의 결의 다지자



정찬홍(위원장)

조합원 여러분!

제11대 노동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닳을 올리고 '대 단결'과 '빛나는 투쟁'을 향한 긴 항해에 나섰습니다.

2개월여 간의 집행부 공백상태와 내부분열, 사측의 유무형의 압력을 뿌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 요구에도 사측과 타협하는데 만 골몰했던 집행부의 굴종적인 행태에 무려 3년여 간이나 좌절해야 했습니다.

사측은 틈만 나면 이런 저런 사탕발림을 내놔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약속을 내팽개치며 직원들을 우롱해왔습니다.

300%에 이르는 밀린 상여금은 사측의 기만적인 술책에 휘말려 어디로 갔는지 찾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유무형의 압력은 우리를 질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합원들은 '일치단결해 결연한 투쟁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을 수 있었고 그 결실은 11대 노조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 큰 시련이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현 경영진은 신화수 사장의 연임을 언어낼 목적으로 제시했던 '상여금 지급기일 준수'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상여금 지급날짜를 부가가치세를 핑계로 교묘히 한 달간 연장한 이들은 새로운 상여금 지급일이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밀린 상여금조차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사장의 재임기간 중에는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던 공언도 어느새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고락을 함께 했던 선배 동료들은 불과 2개월 여 전에 들었던 이런 허망한 약속들을 뒤로 한 채 사장의 하수인들의 손에 의해 하나 둘씩 정든 회사에서 밀려 나고 있습니다.

돈도 보도 못한 낮은 직책의 이들 하수인들은 폭압적인 근무여건을 견뎌내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빼돌려 동료들을 쫓아내는 비용으로 쓰는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과 기준, 절차의 합리성 따위는 이미 그

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사 마지막 보루인 편집국 기자들마저 광고수주에 내몰려 기사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전한 냉소주의, 회의주의, 패배주의에 빠져 경영진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스스로를 내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소리 쳐 봐야 소용없어, 여태 못했는데 지금 와서 뭘 어찌겠어?"라는 식의 냉소주의나 "이러다가 그나마 직장도 잃는 것 아냐?"라는 패배주의는 우리를 망치는 독입니다.

경영진에게 뒷줄을 대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조합 내부의 분열을 은근히 조장하는 자들은 분명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잡아 먹는 약충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조합이 이처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어떤 사용자가 저들의 폭거를 중지하고 조합과 타협하거나 양보하려 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 눈엣가시 같았던 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들의 운명을 제 손아귀에 쥐고 멋대로 흔들려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 체육대회에서 우리 회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작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동네축구에 불과했지만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마지막까지 지친 몸을 내던지는 동료들의 분투를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이 작은 일을 통해 '우린 해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11대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사측의 횡포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신념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동단결, '불퇴전의 결의' 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음습하고 어두웠던 패배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 승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다져 나갑시다.

이 길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축사

지역분권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길



신학림(언론노조위원장)

인천일보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새 집행부 출범을 1만8천 언론노조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라고 합니다. 지방분권시대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지방 아닌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hub) 공항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나라의 관문이고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공동체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인천의 중요성과 그 발전 전망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일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천일보 지부와 조합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단결이 중요합니다. 원칙과 단결로 회사를 올바르게 인도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건전한 소유구조와 투명한 경영, 정론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편집권의 독립 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언론육성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장치들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이런 장치들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매일 절감하고 있듯이 지금 신문시장은 권력과의 결탁이나 재벌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족벌신문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신문들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생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우리 국민들에 끼치는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산별 2기에 접어든 언론노조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6월 신문개혁 투쟁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생존투쟁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신문개혁 투쟁은 또한 언론노조가 국민들에게 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천일보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신문개혁 투쟁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땀 흘립니다.

인천일보, 기형 축구대회 우승

중부 2대1, 경인 3대2, 기호 1대0으로 각각 눌러

인천일보가 수습기자부터 데스크 부장까지 단결된 조직력으로 인천·경기 기자협회 체육대회에서 축구 우승을 차지했다.

7일 수원시 연초제조창 제1운동장에서 치러진 이번 체육대회에서 인천일보는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3게임 전승으로 우승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일보 축구팀은 경인일보와의 예선전에서 1대1 무승부로 승부차기끝에 경인일보를 3대2로 이기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또한 준결승전에서 만난 기호일보를 1대0으로 가볍게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한 인천일보 축구팀은 결승전에서도 중부일보를 맞아 2대1로 승리했다. 특히 인천일보 선수들은 부전승이었던 중부일보와는 달리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3게임 연속으로 출전,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치른 경기에서 승리해 그 감격을 더 했다.



불법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인천일보 분위기가 흥흥하다.

자고 나면 '누구에게 권고사직 요구가 있었다' 는 소문이 나돌고 시간이 지나면 이같은 소문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편집국내 '어느 부장이 정리하고 대상이다' '모 부장은 어디로 발령난다' 는 등의 풍문까지 번지면서 신문사에 때 아닌 '인사태풍설' 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직권고를 하고도 노조와 아무런 논의 없이 '각개격파' 식으로 조직을 흔들고 직원들을 회사밖으로 내 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사장이 누누이 '구조조정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직원이 함께 살 수 있는 신문사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음에도 사장의 발언이 무시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특히 사장이 당신의 재신임을 위해 노조측과 맺은 협약서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자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추진돼 인천일보의 실제 사주가 있긴 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회사측은 아마도 인천일보 노조가 조합원이 대상이 아니라면 적당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눈감아 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알팍한 판단으로 조직을 흔드는 손이 있다면 11대 인천일보 노조 출범후 엄청난 응징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도 모든 식구들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이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러나 현재 회사가 해야 할 일은 구조조정이 아니며 임시적 구조조정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장이 앞장서서 모든 직원들에게 '경인지역 신문사중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다' 고 약속했던만큼 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직원 몇명을 줄인다고 경인지역 최고의 대우가 보장될 수 있는가?

우리 노조가 선배와 동료들의 피눈물을 빨아 자기 배를 채울 정도로 비열하고 치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어느 충성스러운 간부가 있어 사장대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한다면 그 간부 먼저 회사를 떠나면 된다. 왜냐하면 그런 과잉충성이 인천일보를 현재의 나락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흐린 판단력과 속보이는 미사여구로 직원을 속이고 회사를 속이고 지역사회를 속이는 세력이 있다면, 경영에 대한 아무런 노하우없이 자신이 경영자라고 선부르게 자위하는 간부가 있다면 그들이 구조조정 0순위다.

이제 회사와 사장이 추진해야 할 일은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고 어떤 사업을 벌여 직원들에게 어떻게 최고의 대우를 해 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그런 전제가 해결되고 나면 노조도 회사의 회생과 도약을 위해 전 조합원의 동의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책임질 수 없는 일부 간부들이 충성심으로 무장, 주먹구구식으로 신문사를 이끌어 가는 것은 유신시대엔 불가능했던 일이지 개명천지에 누가 신문사의 일방적 공갈에 넘어간단 말인가.

이제 애꿎은 본부장들이 아닌 사장이 직접 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경인지역 최고의 대우를 포함한 '무구조조정' 등은 사장이 직접 약속한 사안들이기에 사장 말고는 누구도 표류하는 인천일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경기지역 조합원 목소리도...



구대서(편집본부)

제11대 인천일보 노조집행부가 출범했다. 이번 집행부는 여러가지 시점으로 보아 의미가 깊다. 그런만큼 집행부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인천일보 노조가 한세대를 뛰어넘어 새 원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참여정부 출범이후 신문시장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노조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에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 그 만큼 조직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신문의 활성화로 신문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집행부가 어떻게 항로를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어찌보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일보 노조집행부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따라 적절한 노선과 대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노조원들의 의지를 한곳에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안일한 사고방식이나 소극적인 대안 제시 등 구태의연한 모습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노조원(직원)들이 인천일보를 동북아의 대표신문으로 만드는 주인공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그냥 변화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앞날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노조집행부는 시대에 걸맞는 의식의 변화와 성숙을 바란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인천지역 위주의 노조활동에서 벗어나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바라보는 큰 시각을 갖는 판단력을 기대한다.

물론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인천과 경기지역의 교류도 찾아지면서 인천일보를 생각하는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지역의 노조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적지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인천, 경기지역의 이질감을 좁히고 융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노조집행부의 역할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일보 노조 발전은 물론 나아가 일천일보의 발전을 위해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기운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걱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비판적인 시각은 갖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의지를 한데모아 인천일보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힘차게 열어가는데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직원모두가 희망을 갖고 현장에 뿔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고 직원개개인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사원위주의 회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땀방울과 역량을 바란다.

대화하는 노조를 만들자



노형래(편집본부)

'기자' 한번 되겠다고 소신과 열정만으로 시작한 나의 수습기자 생활이 벌써 3개월을 넘기고 있다.

기획실,경영전략본부, 운전부 그리고 편집국 등을 돌아보던 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 내내 인천일보의 규모에 놀라고 있었다. 또한 공향과 향만을 견학했을 때 그 곳을 출입하는 선배들의 모습에 당당함이 서려 있어 나의 어깨도 으쓱해 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뉘시 모를 뿌듯함도 잠시, 편집국으로 내려오고 난 후부터 인천일보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미묘한 기운이 흘렀다.

물론 그때까지 계속되었던 흔히 일어나는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신병 수습기자는 긴장하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연일 노조에서는 회의를 한다는 방승이 끊이지 않았다.

어리버리 신병 수습기자는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너희들은 신경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배우라"는 한 선배의 말만을 믿은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난 정식으로 노조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노조원이 되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신입노조. 그리고 처음 노조라는 것에 가입한 수습기자들. 선배들이 수습기자들에게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수습기자들도 신입노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니 건방진 소리지만 인천일보 모든 식구들이 그러 할 것이다.

처음 노동조합에 가입한 나에게는 모든것이 낯설게만 느껴진다. 과연 내가 노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노조에게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이번 신입노조는 임금협상, 복지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출발한다. 이는 노조원들의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내 막내부터 최고 선배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한 끊임없는 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 안자



이장호(인천출판사)

요즘의 사람관계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심지어는 삭막하기까지 하다. 선배와 후배간의 관계, 친구관계, 사제관계 등등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따뜻한 정이 오고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메마르고 건조한, 그야말로 관성화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염려가 든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주변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저냥 대충 대하거나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배려하자는 것이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만나는 주변의 동료들을 그냥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진실하게 대하자는 것이다.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조금 넘치거나 혹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그들은 폄훼하고 멀리

하지 않는가?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지는 않는가?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인간들까지 감싸자는 말은 아니다. 단지 우리끼리라도 조금만 차이는 극복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다. 보다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인간관계를 풀어가자는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비판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동료로 대하는 마음이 아닐까? 서로 간의 일을 매개로 한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정겨운 관계로 바뀌보자. 이 힘들고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끼리라도 정겹게 한번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조합원들, 단힌 마음 다 털어버리고 조그맣지만 소중한 사랑의 씨앗을 하나씩 가슴깊이 심어보심이 어떨지...

노조 1차 대의원 대회 열려

6월 28일 MT이후 본격 임단투쟁 예정

제11기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9일 오후 4층 회의실에서 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대의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수(경영전략본부), 유병범(기획관리본부), 이장호(인천출판사), 홍성수(경기본사), 심동렬, 이은경, 지건태(편집본부) 등 7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노조 집행부 구성건과 노조 부서설치, 노보 발행, 노조 홈페이지 운영 등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우선 노조 집행부 구성은 정찬홍 신임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에 김기준·반준열·김형태 조합원 등 3명이, 사무국장에는 남창섭, 사무차장 송영휘 조합원이 선임됐으며 집행부와는 별도의 독립기구인 노보편집장에 김진국 조합원이 연임됐다.

11대 인천일보 노동조합의 출범식은 오는 11일 오후 5시 4층 회의실에서 외부초청인사 없이 조합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내부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며 노조 출범식 및 MT는 이달 28일부터 충남 태안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어 노조에 설치될 신설 부서로는 ▲노보 및 노조홈페이지, 대자보 게재 등의 역할을 담당할 홍보선전위원회와 ▲조합 운영 및 투쟁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담당할 재정복

지위원회, ▲여성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위원회, ▲사측과의 노사협상 결렬시 쟁의를 지휘할 투쟁위원회 등 4개 부서가 확정됐다.

11일 처음으로 발행되는 노보는 8면, 이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4면을 발간하기로 했다.

노보의 1개면은 기자협회 인천지회의 협조를 받아 민실위 보고서를 게재, 기사가 왜곡되는 사례를 폭로하기로 했으며, 사내 곳곳에 '비리 고발 접수함'을, 노보에는 접수창구를 개설해 회사 안팎의 제보를 파악해 노보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조원 추가 가입이 진행돼 현재 편집국 신입사원 4명(김성중, 노형태, 이주영, 윤영석), 수원본사 2명(송명희, 유명식), 기획관리본부 2명(전계숙, 남윤석), 전산실 1명(정영섭), 마라톤 사무국(이난영, 최승만, 강정일), 중국판 전담직원(김성해)이 모두 4일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 노조의 가장 큰 역할인 임단협과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하자는 의견과 상황을 지켜본 후 신중히 대응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실시될 조합원 설문조사는 28일 노조 MT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민심위보

낙종인가 외압인가

지난달 1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전국 지방신문사 편집국장과 가진 토론회에서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언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인천에서 제법 굵직한 사건이 하나 터졌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장순복 이사장(57)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이다

당시 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주려고 수백억 원을 시 예산을 출연해 만든 기관으로 장 이사장의 구속은 충분히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고됐었다.

더욱이 시의 산하기관의 이사장이 구속된 공무원 비리사건을 지방언론이 간과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천일보는 당시 장 이사장의 구속 사실을 단 한 줄도 지면에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지방 일간지와 중앙지에서는 장 이사장의 구속 사실을 잇달아 보도했다.

기호일보의 경우 사회면에 장 이사장의 구속 사실과 함께 혐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뤘으며, 경인일보와 한겨레도 그 다음날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을 출입한 인천일보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며, “어떠한 외압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일보 지면에서는 그 다음날에도 이와 관련한 기사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물먹었다’ 라는 담당기자의 해명만으로 덮고 넘어가기에는 배경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은 고위직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여기에 인천일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이 있었다.

특히 이번 장 이사장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 인천일보 사장과 가까운 친인척 S모 사무국장이 연루됐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까지 청구 된 사실을 유독 인천일보만이 보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집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그것이 담당기자의 ‘낙종’ 이든, 사주의 외압이든 마땅히 보도됐어야 할 기사를 지면에 옮기지 못한 담당 데스크와 편집국장은 해명해야 한다.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당시 인천일보를 펼쳐 봤다면 분명 지원에 앞서 일부 중앙지와 마찬가지로 개혁에 대상으로 치부했을 것이다.